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여름철 자연 재난 예방

전주시, 호우·태풍 등 대비 위해 5월 15일~10월 15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름철만 되면 시간당 강수량 100㎜를 넘는 호우와 폭염, 열대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전 대비의 주요 내용은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 및 사전점검 △자연 재난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극한 호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점검 및 시험가동 △무더위쉼터 점검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운영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이다.

먼저 시는 농업·산림·하천·도로 등 4개 분야별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로 △저수지·소류지, 시설하우스·과수원 사전점검 △농로·농수로 정비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임도·등산로 사면 및 배수로 점검 △취약지역 주민 현황 파악 및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 점검 △배수통문, 배수통관, 배수펌프장 등 하천시설물 시험가동 및 하천 출입 차단시설 점검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침수우려 취약도로 진입차단시설 점검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특히 시는 극한 강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과 건축·해체 공사장, 하천변 도로 및 둔치 주차장, 지하차도에 대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대피 상황을 대비한 이동 수단과 대피소 확보 및 실제 상황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반지하주택은 집값이 비싼 서울과 달리 전주는 13개 가구 26명에 불과하나, 호우 경보 시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 등을 통하여 대피를 유도하며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사회 공헌협의회' 지원을 받아 반지하 주택 입구에 '차수막'을 설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

서신 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3개소와 하천변 언더패스 도로 17개소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안전 경고판과 함께 바리케이드로 차단하게 되는 등의 차량 통제를 실시하며, 또 전주시 지하차도에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참고하여 양쪽 출입구에 유도 손잡이를 사람 키 높이에 따라 50센티 간격으로 10줄 정도 설치해서 누구나 대피가 용이하다.

또한 시는 폭염에 대비해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전주지역 499개소 무더위쉼터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린통합쉼터와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설치 할예정이다.

이후 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돌입해 △재난상황실 상시운영을 통한 24시간 CCTV 관제 △예·경보시스템 및 방재시설 운용 △재난문자, 재난전광판, 방송자막 및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해 13개 분야별 협업부서와 함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여름철 자연재난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여름철 자연 재난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빈틈없는 사전 대비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나눔 문화 확산 '앞장'

12~19일 아름다운가게와 기증 행사 마련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나눔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6일 시의회는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와 함께 오는 12일 의회 1층 로비에 '집중 기증의 날' 코너를 마련하고,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증 물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증 물품 접수는 12~19일까지 이어지는데 의회는 행사 첫날을 '집중 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기부 물품을 접수한다.

기증 물품은 사용하지 않거나 오염이 없는 의류와 생활, 주방·잡화류, 가전 및 디지털 기기, 도서나 음반류(7년 이내 출간한 일반 단행본이나 아동도서) 등이다.

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된 물품을 상품화해 판매행사를 열고, 발생한 수익금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후원하거나 자원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남관우 의장은 "의회가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전주시, 1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

전주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중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신혼부부 16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251가구이며 보증금 지원액은 49억여 원이며 올해 지원액은 11억 원이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최대 2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청년은 최대 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1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최장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보증금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인 LH가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전북도(40%)와 전주시(60%)에 각 해당액을 반환하게 되어 임대 보증금의 미회수로 인한 공공예산의 손실은 미연에 방지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주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위원장 조익빈), 재언교회(목사 김규배)는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380만원을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을 방문해 기탁했다.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재언교회, 장학금 기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위원장 조익빈), 재언교회(목사 김규배)는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380만원을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을 방문해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조익빈 위원장, 김규배 목사를 비롯해 중·고·대학교 입학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중·고등학생 10명(1인 30만원), 대학생 2명(1인 40만원) 등 총 380만원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조익빈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재능을 찾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재언교회 김규배 목사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중화산2동장은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꿈을 응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소외이웃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주민자치위원장과 재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익빈 주민자치위원장과 김규배 재언교회 목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전달 또한 그 노력의 일부이다.

/김옥기 기자

덕진동 마을계획추진단, 저소득 아동 가정에 라면 전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마을계획추진단(단장 진희천)은 6일, 덕진동 주민센터(동장 이미영)를 방문하여 저소득 아동 가정에 이웃돕기 라면을 전달했다.

덕진동 마을계획추진단 단원들은 평소에도 덕진동 충혼탑 주변 청소 및 잡초 제거 등 깨끗한 동네 만들기 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학 시기를 맞아 저소득 아동 가정을 위해 이번

나눔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희천 덕진동 마을계획추진단장은 "우리 추진단의 작은 활동이 저소득 이웃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단체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